

캐나다 지명표준화의 100년에 관하여

Helen Kerfoot

(UN지명전문가회의 부의장)

<개요>

- 캐나다의 국가 지명 관계 기관
 - 100년의 역사 (1897-1997)
 - 캐나다지명상임위원회(Canadian 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CPCGN) - 오늘날의 임무
 - CPCGN의 전략적 계획
- 오늘날의 표준화의 몇 가지 구성요소
 - 지방적 사용법의 우선권
 - 두 가지 언어(영어/불어)로 지명을 표기
 - 자국어와 지명
 - 주요 행정적 재구조화
- 캐나다 공식 지명의 선전 - 일반인에게 전달
 - 캐나다 지명 데이터베이스
 - 출판물
 - WWW의 위력 <http://GeoNames.NRCan.gc.ca>
 - "SchoolNet" - 지명과 교육
- 배포물
 - (1) 지명부여의 원칙과 과정
 - (2) 지명과 CPCGN
 - (3) 소책자(캐나다 지리적 특색의 명명)
 - (4) 성과물에 대한 다양한 팸플렛(첨부)
 - CPCGN의 핵심적 활동 영역
 - 자국 언어 정보
 - "SchoolNet"의 메뉴 페이지

<CPCGN의 핵심적 활동 영역>

캐나다인들을 위해 CPCGN은 캐나다 지명에 대한 분명한 문서화 프로그램과 가급적 많은 일반

인들의 사용 및 인식을 위한 표준화된 지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UN 지침과 관련하여 이 지명 정보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타국가에서 제작하는 지도 및 문서상에서의 캐나다 지명의 올바른 사용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캐나다 지명 관련 서비스의 구축은 몇몇의 상호 연계적인 또는 상호 독립적인 영역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1. 캐나다 전역의 지명 수집과 그 지명의 적용에 관한 기술
2. 지명 기록의 자동화와 정보 이용 자동화 시스템의 보장
3. 국가 지명과 관련된 정책, 원칙, 표준, 지침의 개발
4. CPCGN 프로그램 보조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 도구, 훈련의 제공
5. 정확한 지명 정보의 배포
6. 국제사회와의 접촉

현지 조사 기록과 기록 참조를 통한 '지명 수집과 그 지명의 적용에 관한 기술'은 기초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캐나다 정부와 일반인들의 사용을 위한 유용하고도, 정확하며, 모호하지 않은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캐나다 내의 영국계 캐나다인, 프랑스계 캐나다인, 토착민 등의 사용법을 반영하고 있는 지명을 현지에서 올바르게 수집하는 것과 함께, 캐나다 안팎의 지도 제작을 위해 이 지명들의 의미적이고, 일관적이며, 공식적인 인식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개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본적 틀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CPCGN이 적절한 '도구와 훈련'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지명을 문서화하는 과정상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보의 배포'는 매우 중요하다.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작성된 정보를 유용화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캐나다 지명의 수호자로서의 캐나다 지명상임위원회는 직면하고 있는 전문적이고도 문화적인 역할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지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한 전세계적인 지명 사용의 적절한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CPCGN이 '국제사회와의 접촉'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명이 제대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캐나다 북부 지역, 토착민의 권리 실현, 구두로만 전해 내려오며 금방 사라지는 정보의 중요성들은 캐나다 지명의 일관적이고도 잘 조직화된 계획을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토착민에 의한 지명 부여의 중요성은 1986년의 Native Geographical Names Symposium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